

『한국사상과 문화』 제10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논문집(2019.12.31)

한국철학의 정체성과 한국철학사의 관점

김 형 찬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 I. '한국철학' 혹은 '한국사상'
- II. 고유성과 정체성
- III. 한국철학의 '특성'
- IV. 한국철학의 성공과 실패
- V. 맺음말: 정체성과 관점

<논문요약>

한국철학은 이제 근대 학문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서구와 일체의 침탈을 겪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에 다소 편중되거나 왜곡된 면이 있다. 서세동점 시대에 서구 중심적 관점에 의해 설정된 ‘문명 vs 야만’의 구도에 맞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구 학문의 관점에 따라 한국철학의 범위와 논제가 제한되었고,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과제 속에서 철학사상의 ‘고유성’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철학 분야의 연구는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과 축적을 이루었다. 그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철학사’에 담길 만한 대표적인 ‘한국철학’들의 특성과 철학사적 가치에 주목한다면, 한국철학사의 관점, 즉 철학사의 평가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관점은 곧 한국철학의 본질적 특성, 즉 한국철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원효, 지눌, 퇴계, 율곡, 다산, 혜강 같이 대표적인 한국철학자로 평가되는 학자들이 이룬 업적의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당면과제에 대해 당대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여 대안을 모색하였고, 그 치열한 모색과정에서 이룬 성과들이 한국철학사의 대표적인 성취로 평가된다. 그 동안 한국철학 분야에서 주목되어 왔던 심성론 혹은 존재론 분야의 치밀한 개념적 논의는 바로 그러한 성과들의 일부이며, 그것은 한국철학이 철학이라는 학문분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원효에서 혜강에 이르는 한국철학자들이 한반도에서 당면했던 현실의 과제들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그들의 성과가 한국철학일 수 있는 특수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철학사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국인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의 형식과 수준이 근대학문으로서의 철학분야에서 인정될 만한 정도에 이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한국철학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성과들이 한국인들이 겪어 온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설정과 대안모색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철학, 한국철학사, 사관, 원효, 지눌, 퇴계, 율곡, 다산, 혜강.

I. ‘한국철학’ 혹은 ‘한국사상’

‘한국철학’의 정체성¹⁾이란, 한국철학이 한국철학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질적 특성을 의미한다.²⁾ 그것은 한국철학이 근대학문으로서의 철학 분과에 해당하며, 다른 철학과 달리 ‘한국’철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철학이 근대학문의 한 분과로 자리 잡으면서 당면했던 두 개의 과제를 상기해야 한다.

하나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 제기되었던 서구인들의 ‘문명 대야만’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였다. 당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문명’을 자부하는 서구인들에 의해 ‘야만’으로 규정되었고, 이 지역 지식인들은 절대적인 물리력의 열세 속에서 그 ‘야만’의 관점을 반박해야 하는 처지에 서게 되었다. 특히 ‘철학’은 서구 문명의 탁월한 우월성을 상징하는 학문으로 여겨졌고,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도 그 ‘철학’에 해당하는 학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식

-
- 1) 한국철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한국철학사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끌고 나간 이 글의 문제의식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한국문화의 정체성 연구’라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문화’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기 위한 것이었고, 필자가 맡은 부분은 그 중 ‘한국철학’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철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철학사’의 관점 혹은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고,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 주최로 개최된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를 위한 연합 학술대회’(주제: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 그 길을 열다’, 2019년 6월 25일)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어떤 ‘한국철학’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개하면서, 이것이 결국 한국철학사의 관점과 기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자들, 학술대회 참가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더 깊어지고 다듬어진 것이다.
 - 2)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정체성>)

인들의 과제로 받아들여졌다.³⁾

이 당시 한국에 소개된 서구의 ‘철학’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독일관념론 중심의 논의들이었고, 그것들을 통해 이해된 ‘철학’이라는 학문의 성격과 기능 자체도 온전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⁴⁾ 하지만,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인의 지적 전통 중에서 그러한 ‘철학’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추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을 구성하여 연구하였고, 그러한 맥락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목을 받은 불교와 유교의 형이상학적 논의들이 한국철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으로 구성·연구되는 ‘한국철학’이 ‘철학’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그러한 논란은 서양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한국철학을 포함한 동양철학이란 소박한 의미의 윤리학이나 정치사상에 해당할 뿐 서양철학과 같은 ‘심오한 철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시선을 연구자들은 극복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아시아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전통 중에서 서양의 ‘철학’에 해당하는 논의들을 추려내어 이른바 동양의 ‘철학’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철학을 포함한 동양철학은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사회가 급변하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3) 馮友蘭의 『중국철학사』(上海: 商務印書館, 1934), 胡適의 『中國古代哲學史』(台灣: 臺灣商務印書館, 1958) 등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기술된 중국의 철학사이다. 1970~80년대에 ‘한국철학회’에서 ‘한국철학사’를 공동 집필할 때 그 방향을 제안했던 박종홍의 글 역시 그러한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종홍, 「한국사상의 방향」, 『한국철학연구(상)』(동명사, 1977), p.1~20). 이러한 입장은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에도 서구의 민주주의, 실용주의 등과 관련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전통사상의 가치를 논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철학사 혹은 사상사를 연구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문제의식은 바로 이 ‘야만’ 극복의 과제를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광래, 『한국의 서양 사상 수용사』(열린책들, 2003), pp.317~333.

데, 서구에서는 철학의 연구에서 철학사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역사의 몫으로 돌리고, 현재 인간이 당면한 문제들을 철학적 방법론으로 논의하는 것을 주된 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철학 및 동양철학 연구자들이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중에서 열심히 추려낸 ‘철학’의 성과들은 이제 모두 역사학으로 재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동아시아의 학자들 사이에서 ‘철학’이라는 학문 분류를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문명-야만’의 관점에 대해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지적 전통과 학문 성격을 온전히 재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였으며,⁵⁾ 또한 그것은 ‘문명 대 야만’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아마도 ‘철학이나, 사상이나’라는 용어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 불교, 도교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철학’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유의 체계일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공부-수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신修身的 성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공부-수양의 성과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며 크고 작은 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적용되고 검증된다. 그러한 점에서 서양 근대학문의 분과로 보자면 동아시아의 철학적 논의란 형이상학적 철학 이론과 윤리학, 역사학, 정치학, 행정학 등이 연관된 종합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학문인 동시에 자연-사회-인간의 일치를 지향하는 인격 완성의 학문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방식의 학문 분류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은 근대학문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전근대적 학문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학문의 본질 자체가

5) 중국 청대 철학을 연구하다가 근래에 한국 현대철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규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규성, 『한국현대철학사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pp.6~37.

그렇게 근대 분과학문의 기준으로 분절해서는 그 특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전통에 기반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대해서는 ‘철학’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의미에서 ‘사상’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철학’이 ‘사상’에 비해 인간의 사유 과정과 체계에 대해 보다 집중하며 이론적 탐구를 지향하는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 지적 전통에서의 사변적 이론의 성과를 ‘철학’의 분과에서 논의할 때 가지는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한편으로 이미 철학과 사상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용어를 둘러싼 논의 자체가 사실상 소모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⁶⁾

여기서 이에 관한 오랜 논의의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논의는 바로 한국철학이 단순히 서구 근대의 분과학문으로서의 철학으로 규정되기 어려우며, 그보다는 좀더 넓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개인적 사회적 실천 속에서 구현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고려 혹은 포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포함한다는 전제 아래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 ‘한국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⁷⁾

6) 중국사상사 연구자인 葛兆光은 그러한 의미에서 ‘철학’ 혹은 ‘사상’의 용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럼에도 ‘철학’이라는 용어가 이 분야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 때문에 그 역시도 이 논쟁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葛兆光, 『사상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思想史的寫法)(이연승 옮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7) 한국철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교, 불교, 도교가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국철학’과 ‘한국종교’의 구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공유하면서도 그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에 따라서 학계에서 이미 철학 분과와 종교 분과에서 나뉘어 연구,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자리에서 굳이 그것을 재론

II. 고유성과 정체성

근대학문으로서의 한국철학이 당면했던 또 하나의 과제는 일제 관 학자들이 전파시킨 식민사관을 반박하고 극복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한민족에게 창의성과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민족에게는 고유한 철학사상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은 독립국을 유지할 만한 주체적 역량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조선 합병이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⁸⁾ 국권 침탈의 피해의식을 가진 한국의 지식인들로서는 그들에 대해 뭔가 한국만의 독창적인 고유 사상의 존재를 주장해야 했던 역사적 정황이 있었다. 신규식의 ‘한국혼’, 정인보의 ‘조선열’ 등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나라 잃은 국민의 “무공포적無恐怖的 도덕”을 주장하며 일종의 폭력적 민족주의로 나아간 사고방식까지도 약소국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왔다.⁹⁾ 단군신화와 홍익인간에서 단일민족의 기원과 그 정신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¹⁰⁾ 한국철학에 대한 관점도 그러한 역사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8)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사관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만열, 「일제관 학자들의 식민주의사관」, 『한국근대 역사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81), pp.259~292; 김정인,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017) 제125호, pp.7~44 참조.
- 9) 신채호, 「도덕」, 『단재 신채호 전집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627~632; 「조선혁명선언」, 『단재 신채호 전집 (8)』, pp.891~901.
- 10) 단일민족의 정신에 기대어 민족 중심주의 혹은 국가 중심주의로 나아간 대표적 인물로 안호상을 들 수 있다. 그가 이를 토대로 국가유기체설에 기초한 전체주의를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시대의 과제에 능동적으로 응답한 철학적 사유의 한 양상이었음은 분명하다. 그에 관해서는 오상무, 「현대 한국의 국가철학: 안호상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2005) 제36호, pp.71~96 참조.

철학분야에서 그것은 한국인에게 면면히 이어지는 고유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무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유의 철학이 있어야 독립국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어렵지 않게 드러난다. 실제로 고유한 철학을 가진 민족 혹은 국가는 그리스, 인도, 중국 등 인류문명의 기원들로 여겨지는 몇 지역에 위치한 소수의 나라들뿐이다. 더욱이 서구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대부분이 그리스철학을 자신들의 철학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유한 철학을 가져야 독립국가 성립될 수 있다는 식민사관 논리는 간단히 논파된다.

더욱이 이제 그러한 과제는 현실에서 이미 종결되었다. 한국과 한국인의 존재 가치와 자립 능력은 철학사나 정신사 연구의 도움 없이도 정치·경제·사회의 현실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인이 왜 독립국의 국민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유성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한국철학’이란 무엇인가? 아직도 학계 안팎에서 인정받을 만한 ‘한국철학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식민사관 극복의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철학의 정체성에 관련된 논의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다른 철학들과 다른 ‘한국철학’의 정체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철학의 범주를 규정할 수 있는 지역, 사람, 주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국가들의 흥망, 민족들의 교류, 철학적 논의들의 다양함 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접근 방법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간에 한국철학 또는 한국사상 분야에서 축적된 많은 연구 성과를 인정한다면, 그 성과들을 통해서 학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철학’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철학사’를 서술할 경우에 대다수의 관련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철학’의 논제를 선정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을 추출한다면 그것이 ‘한국철학’의 정체성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한국철학사’를 기술하려 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철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Ⅲ. 한국철학의 ‘특성’

‘한국철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학자들이 있다. 원효(617-686), 지눌(1158-1210), 퇴계 이황(1501-1570), 율곡 이이(1536-1584), 다산 정약용(1762-1836), 혜강 최한기(1803-1879) 등이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학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한국철학 분야에서 학문적 평가, 그리고 관련 연구성과의 질과 양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학문이 한국철학임을 의심할 수 없고, 또한 누가 한국철학사를 집필하든 이들을 빼놓고 한국철학사를 완성할 수는 없다. 만일 이들의 학설에서 한국철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연관된 어떤 공통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철학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특성이 되고, 한국철학사 집필을 위한 평가기준 혹은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분열과 대립의 극복

철학사에서 원효의 가치는 당시 여러 종파로 나뉘어 사분오열하던 동아시아 불교계의 현실에서 불교의 본질에 입각하여 불교이론의 성격을 판별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종파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그는 중관(中觀)과 유식(唯識)의 두 갈래로 불교계의 분열을 정리하고, 그것들이 불교의 진리의 양면을 설명하는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천명하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화쟁'으로 대립을 극복할 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간적 현상계와 출세간적 본체계의 대립을 넘어선 불타의 자세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불교의 정신을 실천하였으며,¹¹⁾ 그러한 그

의 이론과 실천은 각 종파가 화합하고 삼국이 통일로 가도록 하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선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²⁾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의상(625-702)과 대비되곤 하는 원효는 삼국이 대립하던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불교의 핵심 문제를 마주하였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것을 한반도의 현실에서 실천한 것이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승려로서 지눌의 문제의식도 바로 그가 당면했던 불교계의 현실 속에 있었다. 국교로 인정된 불교의 사찰과 승려들이 당시 지배세력의 일원으로서 부와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불교계의 문제는 바로 고려 지배층의 문제였다. 지눌은 선정수행과 교학공부의 병행, 깨달음을 향한 맹렬한 공부-수행과 헌신적 이타행 실천을 통해 당시 불교계의 반목과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결사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라는 당시 불교의 뿌리 깊은 갈등을 넘어서 두 가지 공부와 수행의 방식이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을 위해 모두 필요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고려불교의 기풍을 새로이 세웠다.¹³⁾ 또한 각자의 역량에 따라 불교의 가르침을 익히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수행자가 허황된 자만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수행의 길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분열과 대립, 그리고 세속적 타락으로 물들어 가는 불교계의 현실 속에서 불교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범으로서 불교가 갈 길을 모색하였으며,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인도와 중국의 불교 이론을 활용하여 그 대안을 만들어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은 당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불교의 빛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불교의 기풍이 되었다.

2. 국가의 이념적 대안 모색

11) 은정희, 『대승기신론 강의』 (예문서원, 2008), pp.14~23.

12) 한기두, 『한국불교사상연구』 (일지사, 1980), pp.40~41, pp.55~56.

13)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1), pp.225~250.

퇴계 이황은 조선의 건국이념이 퇴색되어 가던 시기에 주자학의 기반 위에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양명학의 심성론적 문제의식에도 주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덕 이상사회를 구현해 가도록 하기 위한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현실의 정치와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당대의 중국유학사를 정리하고 주자학과 양명학의 저술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사단칠정논쟁을 주도하며 성리학 이념의 이론적 기반을 천착하여 조선유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자연의 이치가 인간의 심성을 통해 현실에서 판단과 행위로 구현될 수 있는 강렬한 도덕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학설을 세우고, 그러한 도덕적 지향성을 가진 군왕의 심성으로부터 온 세상에 덕치가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사상을 제시하였다.¹⁴⁾ 다른 한편으로 상소문과 편지를 통해 유교국가의 주체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진리의 전당으로서 서원의 건립 운동을 주도하여 부패하기 쉬운 권력을 견제할 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¹⁵⁾

율곡 이이는 철저하게 주자학의 이기론과 심성론의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세계를 이상적인 도덕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이기심성론의 정합적인 체계로 세계를 이해한 그는 도덕적 판단력을 가진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의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공부와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고 현실 정치에서 그것을 구현하려 하였다.¹⁶⁾ 그는 축출되었

14) 김형찬, 『율곡이 묻고 퇴계가 답하다: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과 정치 철학』 (바다출판사, 2018), pp.231~236.

15) 김형찬, 「퇴계의 서원관에 관한 철학적 해명」,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2014) 제136집, pp.99~126.

16) 김형찬, 「氣質變化, 욕망의 정화를 위한 성리학적 기획: 율곡 이이의 심성수양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제38호, pp.189~211.

던 사람이 복귀하던 시기에 조정의 중심에서 군왕과 지식인 관료의 협치를 통해 유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군왕은 유학적 진리의 담지자를 상징하지만,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신하들이 그 실현 방안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세습된 군왕보다는 유학의 도통을 계승한 지식인 관료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군왕의 독단과 편견을 견제하고 유학적 정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¹⁷⁾

퇴계와 율곡은 건국의 주체들이 기득권 세력화되어 가던 시기에,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지향했던 건국이념의 의미와 한계를 성찰하고 조선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며, 당대에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문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대안을 찾았다. 그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이기심성론 논의, 국정 운영에서 군신의 관계와 역할에 관한 논의, 서원과 향약 등 유교 이념의 사회화에 관한 논의들은 조선유학을 심화 발전시키고, 조선사회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동력이 되었다.

3. 지적 전통의 재해석과 외래문화의 수용

다산 정약용은 퇴계학맥에서 이어지는 조선유학의 굳건한 전통 위에 있었다. 그는 철저하게 유학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거의 모든 유학 경전들을 꼼꼼히 읽으며 수백 권의 주석서를 집필한 경학자였다. 그러나 철학사상사에서 그의 가치는 천주교와 만남으로써 화려한 빛을 발하였다. 그는 천주교를 통해 눈뜬 새로운 사상의 관점으로 주희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학문적 전통에 속한 학자들의 주석을 비교 검토하며 이천 년 전통의 유학 경전들을 재해석해 내었다. 그는 현실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잃어 가던 유학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으며, 유학의 이상을 천주교라는 외래의 관점에 비추어 보며 다시 읽어냄으로써, 유학 본래의 정신을 당대의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17) 김형찬, 『율곡이 묻고 퇴계가 답하다』, pp.237~242.

길을 보여주려 하였다.¹⁸⁾ 이를 통해 자연의 원리에 근거한 인간 본성에 의존하여 도덕 이상사회를 구현하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인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도덕의 가치를 이해하고 익힘으로써 유학이 본래 지향했던 도덕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학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즉리’, ‘이일분수’ 등과 같은 주자학의 핵심 명제들을 전복시킨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다산 자신이 사숙하고 존경했던 퇴계의 이론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기존 학문의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확신한 유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이었고, 결국에는 외래 기독교의 거울에 비추어 유학 경전들을 재해석함으로써 그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유학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다.¹⁹⁾

해강 최한기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서구의 자연과학에 주목하였다. 감각 가능한 현상세계를 천시하고 감각되지 않는 형이상학의 영역에 관한 논의에 치중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세태를 비판하고, 감각 가능한 현상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며 그의 기학을 세웠다. 그는 옛 성인들의 경험과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기존의 공부 방법을 비판하고, 인류의 지식이 많이 축적될수록 자연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따라서 옛 성인보다 후대의 사람들이 진리 인식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관점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그는 경험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작성한 기준을 바탕으로 인재의 발굴과 양성 및 평가,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을 통한 사회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들은 경전의 주석을 통해 견해를 제시하던 전통적인 경학의 방법을 벗어나,

18) 금장태, 「다산의 유학사상과 서학사상」, 『다산 정약용의 서학사상』(다섯수레, 1993), pp.94~100.

19) 김형찬, 「육망하는 본성과 도덕적 본성의 융합: 다산 정약용의 기호설을 중심으로」, 『철학연구』(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41호, pp.71~93; 「근기실학의 학문 연원과 퇴계학의 학문정신」, 『국학연구』(한국국학진흥원, 2012) 제21호, pp.20~27.

자신의 생각을 경험적 근거를 통해 펼쳐가는 새로운 학문방법으로 제시되었다.²⁰⁾

다산과 혜강은 청나라를 통해 서구문물이 빠르게 유입되던 시기에, 수백 년간 조선을 지탱해 온 유학의 한계를 인식하였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였으며 서구의 천주교와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통해 길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그러한 지식을 단지 이해하고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기존의 학문적 전통을 재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지식으로 유학을 재해석함으로써 오랜 지적 전통이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IV. 한국철학의 성공과 실패

한국철학을 대표하는 그들은 당시의 현실 문제, 그것이 종교계든 지성계든 정치계든 간에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그 근본적인 모색의 수준이 이른바 '철학'이라는 근대의 학문 영역에서 다뤄지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대에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활용 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당대의 현실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한 성과가 바로 우리가 '한국철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다.

현실 인식과 과제 설정, 그리고 다양한 지식의 활용은 그 대안 모색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그 성과의 현실적 타당성과 학문적 수준에

20) 손병욱, 「최한기 氣學의 학문체계 탐구」, 『혜강 최한기 연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pp.47~117; 김용현, 「최한기의 서양과학 수용과 철학 형성」(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5), pp.78-117; 김형찬, 「氣철학에서의 총체적 통찰과 경험적 인식」, 『철학연구』(철학연구회, 2005) 제69호, pp.49~71.

따라 ‘한국철학사’에서의 평가가 결정된다.

1. 현실인식과 문제의식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를 대하는 태도는 학자에게 학문적 관점과 입장으로 드러난다. 여말선초의 대표적인 지식인 관료였던 목은 이색(1328-1396)과 삼봉 정도전(1342-1398)은 당시 원명교체기라는 동아시아 격변기에 한반도의 지식인으로서 그 인식과 태도에서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로 평가된다.

14세기 후반에 고려사회에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목은과 삼봉을 포함한 다수의 지식인 관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명 교체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권력투쟁 격화, 토지점병으로 인한 농민의 빈곤화와 국가재정의 악화, 특권층이 된 불교계의 권력화와 부패 등 당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에 대한 인식과 대안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갈라졌다.

목은은 당시 사회가 대동사회의 전 단계인 소강사회로서 태평성대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전혁파와 같은 전체개혁에 반대하며 기존체제 안에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관료들의 양성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였다.²¹⁾ 그에 반해, 삼봉은 국가체제를 중앙집중화하고 역량 있는 재상과 관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결국 당시 현실에서 왕조 교체 수준의 변혁이 아니면 불가능한 개혁이었다. 목은은 주자학적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유학과 불교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삼봉은 천년의 뿌리를 가진

21) 도현철,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11), p.131, pp.251~255.

불교와의 전면적인 사상투쟁을 통해서 불교를 격하시키고 그와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현실 권력을 박탈해야 온전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²²⁾

그 결과, 고려말 지식인 관료 사회를 이끌었던 목은은 중국 성리학 혹은 주자학을 깊이 이해하고 고려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다. 그는 현실 타개를 위한 철학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논의를 위한 치열한 성찰의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삼봉은 불교를 맹렬히 비판하며 성리학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본정신에 입각한 성리학 이상국가의 구상을 구체화하여 법제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 등으로 정리된 그의 새로운 사회 구상은 철학과 현실 정치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해지며, 그러한 그의 성과는 조선유학의 정신으로 이어져 한국철학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2. 새로운 지식과 낡은 지식

새로 수용한 외래의 지식도 머지않아 내재화되고, 곧 낡은 것이 된다.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가는, 혹은 이미 내재화된 그 지식에 매달리고 고착될 때,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들을 과거로 밀어낸다. 그리고 이 때, 과거의 지식에 매달린 사람들도 함께 밀려난다.

17~18세기 조선을 대표했던 두 지식인, 농암 김창협(1651~1708)과 남당 한원진(1682~1751)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율곡 이이

22)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박홍규, 『삼봉 정도전: 생애와 사상』 (선비, 20016); 송재혁, 『정도전의 정치체제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이 저술들은 삼봉의 정치철학적 입장이 재상 중심인가 군왕 중심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국가권력의 중앙집중화, 토지 개혁, 불교 비판 등에 대한 삼봉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계 김장생->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 노론의 정통을 계승하였다. 남당은 우암의 가르침에 따라 주자의 이론만을 교조적으로 고수하며 여타의 학파와 정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배타적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는 17세기 조선유학의 대표적 논쟁인 인성물성논쟁에서 인성물성이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주자를 정통으로 계승한다고 자부하는 서인 노론 강경파 외에 모든 세력을 배척하였다.²³⁾ 주자 정통주의를 고집하는 정신은 이후에 위정척사파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자파의 세력을 스스로 고립시켰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반면에, 한양에 있던 농암은 청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외래 문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문예사조를 받아들이며, 유학 경전과 성리학 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에 개방된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는 이기심성론의 문제에서도 율곡의 학설뿐 아니라 퇴계의 문제의식도 포용하여 “(퇴율)절충과”²⁴⁾로 평가될 뿐 아니라, 인성물성론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공통성에 주목하는 동론의 입장을 취하였고, 그러한 입장은 훗날 외래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북학과 지식인들에 의해 계승된 것으로 평가된다.²⁵⁾

남당은 이미 낡은 지식이 된 주자학에 매달리다가 ‘과거’가 되었고, 농암은 ‘율곡’과 ‘주자’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며 ‘미래’가 되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농암과 안동 김문도 ‘과거’가 되었고, 우리는 권력에 취해 그 다음의 ‘미래’를 외면했던 그들을 조선후기의 대표적 적폐인 세도정치 세력의 핵심으로 기억한다.

23) 김태년, 「남당 환원진의 ‘正學’ 형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pp.179~192.

24) 배중호, 『한국유학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p.151.

25) 김형찬, 「安東 金門의 지식논쟁과 지식권력의 형성: 농암 김창협학문의 학문적 입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제56호, pp.325~351.

V. 맺음말: 정체성과 관점

한국철학은 이제 근대 학문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서구와 일제의 침탈을 겪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에 다소 편중되거나 왜곡된 면이 있다. 서세동점 시대에 서구 중심적 관점에 의해 설정된 ‘문명 vs 야만’의 구도에 맞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구 학문의 관점에 따라 한국철학의 범위와 논제가 제한되었고,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과제 속에서 철학사상의 ‘고유성’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철학 분야의 연구는 그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과 축적을 이루었다. 그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철학사’에 담길 만한 대표적인 ‘한국철학’들의 특성과 철학사적 가치에 주목한다면, 한국철학사의 관점, 즉 철학사의 평가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관점은 곧 한국철학의 본질적 특성, 즉 한국철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원효, 지눌, 퇴계, 율곡, 다산, 혜강 같이 대표적인 한국철학자로 평가되는 학자들이 이룬 업적의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원효와 지눌은 중관과 유식, 선종과 교종의 분열과 대립이라는 당시 불교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면서 동아시아 불교와 신라 및 고려사회 불교의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이 동아시아 불교사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기풍이 되었다. 퇴계와 율곡은 건국 정신이 퇴락하고 기득권이 고착화되어 가던 16세기 조선의 현실에서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유학을 재해석함으로써, 국가 이념을 다시 세우고 국가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여, 이후 조선의 학문과 정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다산과 혜강은 조선유학이 경직화되면서 새로운 시대에의 대응력을 잃어가던 시기에, 외래의 지식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유학의 오랜 지적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당대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여 대안을 모색하였고, 그 치열한 모색의 과정에서 이론 성과들이 한국철학사의 대표적인 성취로 평가된다. 삼봉이 목은과 달랐던 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며, 당시 선진 사상이었던 성리학의 보편적 기준으로 사회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제도화해 내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암이 남당과 달랐던 것은 바로 기존 이념과 학문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철학 분야에서 주목되어 왔던 심성론 혹은 존재론 분야의 치밀한 개념적 논의는 바로 그러한 성과들의 일부이며, 그것은 한국철학이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원효에서 혜강에 이르는 ‘한국철학자’들이 한반도에서 당면했던 현실의 과제들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그들의 성과가 ‘한국’철학일 수 있는 특수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철학사’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국인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의 형식과 수준이 근대 학문으로서의 철학 분야에서 인정될 만한 정도에 이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한국’철학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성과들이 한국인들이 겪어 온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 설정과 대안 모색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철학 분야의 연구는 근대 이후 전통철학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 현재의 학문으로서 철학적 논의를 생산하지 못하고, 원효, 지눌, 퇴계, 율곡, 다산, 혜강 같은 학자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철학 연구자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문제 설정과 대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방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근대 이후 사회의 발전 방향을 서구의 추종에 맞추었고, 그 문제 설정과 대안 모색도 서구의 경험과 이론에 의존하였다. 이것은 곧 스스로 문제 설정과 대안 모색의 의지를 포기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자

연히 그러한 능력도 상실되었다. 이제 서구의 모델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추종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철학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은 바로 한국철학의 재생산 체계를 재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상에서 설정된 한국철학사의 관점은 바로 한국철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특성인 동시에, 이 시대에 한국철학을 다시 ‘생산’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葛兆光, 『사상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思想史的寫法), 이연승 옮김,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장태, 「다산의 유학사상과 서학사상」, 『다산 정약용의 서학사상』, 다섯수레, 1993.
-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1.
- 김용현, 「최환기의 서양과학 수용과 철학 형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5.
- 김정인,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사학연구』 125호, 한국사학회, 2017.
- 김태년, 「남당 한원진의 ‘正學’ 형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 김형찬, 「근기실학의 학문 연원과 퇴계학의 학문 정신」, 『국학연구』 21, 한국국학진흥원, 2012.
- 김형찬, 「氣質變化, 육망의 정화를 위한 성리학적 기획: 율곡 이이의 심성수양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38,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 김형찬, 「氣철학에서의 총체적 통찰과 경험적 인식」, 『철학연구』 69, 철학연구회, 2005.
- 김형찬, 「安東 金門의 지식논쟁과 지식권력의 형성: 농암 김창협학문의 학문적 입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김형찬, 「육망하는 본성과 도덕적 본성의 융합: 다산 정약용의 기호설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41,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 김형찬, 「퇴계의 서원관에 관한 철학적 해명」, 『퇴계학보』 136, 퇴계학연구원, 2014.
- 김형찬, 『율곡이 묻고 퇴계가 답하다: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과 정치철학』, 바다출판사, 2018.

- 도현철, 『묵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11.
- 박종홍, 「한국사상의 방향」, 『한국철학연구(상)』, 동명사, 1977.
- 박홍규, 『삼봉 정도전: 생애와 사상』, 선비, 20016.
- 배중호, 『한국유학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 손병욱, 「최한기 氣學의 학문체계 탐구」, 『혜강 최한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 송재혁, 『정도전의 정치체제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 신채호, 「도덕」, 『단재 신채호 전집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단재 신채호 전집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오상무, 「현대 한국의 국가철학: 안호상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36, 범한철학회, 2005.
- 은정희, 『대승기신론 강의』, 예문서원, 2008.
- 이광래, 『한국의 서양 사상 수용사』, 열린책들, 2003.
- 이규성, 『한국현대철학사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이만열, 「일제관학자들의 식민주의사관」, 『한국근대 역사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81.
- 馮友蘭 『중국철학사』, 상해, 商務印書館, 1934.
- 한기두, 『한국불교사상연구』, 일지사, 1980.
-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 胡適 『中國古代哲學史』, 台灣, 臺灣商務印書館, 1958.

Abstract

The Identity of Korean Philosophy and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Kim, Hyung-Chan

Although Korean philosophy is acknowledged in modern academia, it has been distorted in its process of experiencing and responding to invasions by the West and Japan. In the process of confronting the composition of 'civilization vs. barbarism' set by the Eurocentric point of view when its influence was spreading, the range and topic of Korean philosophy were limited to these viewpoints in addition to an undue fixation with the "uniqueness" of philosophical thought in order to overcome Japanese colonialism. Nonetheless, research in Korean philosophy has made substantial progres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ased on research,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and philosophical historical values of Korean philosophy which are worthy of being mentioned in its history could illustrate the evaluation of history and reveal its essential character and identity.

In view of this,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hievements of prominent Korean scholars and philosophers such as Wonhyo, Jinul, Toegye, Yulgok, Dasan, and Hyegang. Each actively accepted and applied their knowledge in their own contemporary problems to seek alternative solutions. Such accomplishments in the intense process of reflection are considered representative accomplishm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The detailed conceptual discussion of the theory of mind and nature or ontology,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the field of Korean philosophy, is part of such achievements and is the foundation on which Korean philosophy stands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problems of reality faced by Korean philosophers in the time of Wonhyo to Hyega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erception of these problems gives uniqueness to their achievements, which are therefore mentioned in Korean philosophy. In other words, the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consists of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seeking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that have been faced by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of which the level and form merit its recognition as philosophy as a modern academic field. Furthermore,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philosophy is considered a product of posing problems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 solutions within the realities of Korean history.

【Key words】 Korean philosophy,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view of history, Wonhyo, Jinul, Toegye, Yulgok, Dasan, Hyegang.